

2024 부천문화재단 차세대전문예술활동지원

청년예술가S

결과자료집



시각

이채영 하자유 허선정

공연

김준봉 박예정 엄제은
유하현 이민영 최규화 최아련

목차

1

사업소개 3

사업 소개 및 2024 사업결과

2

실연회 : 전시 6

작가 및 작품 소개
전문가 리뷰
관람객 한마디

3

실연회 : 공연 20

예술가 및 작품 소개
전문가 리뷰
관람객 한마디

2024
차세대전문예술활동지원

청년예술가S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해제 더욱 다채로워진 부천 청년예술인들의 작품들

부천문화재단 차세대전문예술활동지원 <청년예술가S>는
누구나(Somebody) 청년예술가로서 부천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아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40여명의 청년예술가가 공모에 지원했고,
그중 시각·공연 분야 10명의 청년예술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청년예술가S> 사업을 새롭게 개편하여
판화, 한국화, 연극, 무용, 서커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들이
부천의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무르익는 가을, 청년예술가S 선정자의 신작과 함께
부천 예술계의 새로운 물결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예술가드 사업소개

사업 목적

- 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3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 2) 지역 기초예술분야 신진작가 발굴·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생태계 조성

지원 대상

부천 거주, 재학, 졸업, 소속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전문(예비) 예술인

공모 부문

시각	공연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영상, 설치 등	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등

지원 내용

(창작지원) 창작지원금 인당 500만원
 (활동지원) 예술인 역량강화교육, 전문가 자문 및 실연회 비평프로그램 지원
 (발표지원) 통합홍보, 작품 아카이빙, 온라인 실연회 운영 지원

추진 과정

2024. 5~6. 공모, 접수, 심의, 발표 총 10명 선정 (시각 3명, 공연 7명)	2024. 6. → 오리엔테이션 1) 선정자 작품 소개 및 교류 2) 2017 청년예술가S 선정자 성수연(배우) :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의 창작이 될까	2024. 7~8. → 역량강화교육 & 전문가멘토링 1) 역량강화교육 : 청년예술인을 위한 기초 법률지식 교육 2) 전문가 멘토링 : 오정은(미술비평가), 김서령(이오공감 대표)
2024. 9~10. 창작실연회 운영	2024. 11. → 정산 및 결과 보고	2024. 12. → 결과공유회 및 온라인 실연회

추진 결과

- 1) 총 관람객 : 962명
- 2) 관람객 만족도 조사결과 : 98.3%(176명 참여, 173명 긍정응답)

2024 창작실연회

전시

이채영	말없는 세계	10.22.(화)~10.27.(일)	부천아트벙커 유인송풍실
하자유	공연히 숲을 헤쳐서 뱀을 일구더니	9.23.(월)~10.4.(금)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B1
허선정	빛을 실은 바람, 진동하는 풍경	10.8.(화)~10.13.(일)	부천아트벙커 유인송풍실

공연

김준봉	서커스	인간하물벗기쇼	10.12.(토) 17:00	부천아트벙커 시민광장
박예정	국악	Timelapse2	10.26.(토) 16:00	부천아트벙커 시민광장
엄제은	한국무용	날개를 잃지 않았다면	10.20.(일) 19:00	부천아트벙커 에어갤러리
유하현	클래식	가을의 메타포	10.19.(토) 17:00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
이민영	서커스	Us again ver.2	10.27.(일) 15:00	부천중앙공원
최규화	연극	터질 것만 같은 행동싱크	9.29.(일) 15:00 / 19:00	소극장 극예술공간
최아련	연극	Let's Go To My Star 시즌 3	10.25.(금) 17:30 / 19:30	소사공간

온라인 실연회

본 실연회 실황영상 및 사진은 12. 26.(목)
 '문화가 있는 날 : 2024 청년예술가 창작실연회'로
 부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네오룩을 통해 공개됩니다.



2024 청년예술가S 실연회: 전시

예술가명	작품명	일정	장소
이채영	말없는 세계	10.22.(화)~10.27.(일)	부천아트벙커 유인송풍실
하자유	공연히 숲을 헤쳐서 뱀을 일구더니	9.23.(월)~10.4.(금)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B1
허선정	빛을 실은 바람, 진동하는 풍경	10.8.(화)~10.13.(일)	부천아트벙커 유인송풍실

2024 청년예술가S 심의총평 : 시각 부문

청년예술가S 사업이 지속되는 동안, 매해 약간씩의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개인전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변화가 있었고 이에 전년 대비 작가 개인의 역량 증명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역량만이 심의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다. 청년작가로서 시대를 의식하며 본 사업을 통해 어떤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았다. '청년'이라는 범주 안에 다양한 연령, 경력, 매체 예술가가 지원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심의과정에서 다층의 고민을 하게 된다. 이는 <청년예술가S> 사업뿐 아니라 유사 청년지원제도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 바이기도 하다. 작가로서 자신의 일관된 작업세계를 꾸준히 추구하고, 안으로의 깊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면모가 엿보인 작가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배점받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의 건투를 기대한다.

이채영

Lee Chaeyoung @chaeyoung_art1



<말없는 세계>

10.22.(화)~10.27.(일)

부천아트벙커B39 유인송풍실

폐허 속에는 도시의 변영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라지고, 파괴되어있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과거 번성했던 공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쇠퇴한 결과물들인 폐허의 흔적들, 공장의 가동이 멈춰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곧 사라질 것들이나 이미 사라진 것들이었다.

도시의 화려한 이면인 불안함과 쓸쓸함, 그 속에 깃든 허무함이 공존하는 이러한 풍경들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번영과 쇠퇴, 생성과 소멸이 교차하는 이 공간들은 단순히 과거의 잔해가 아니라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 존재의 흔적을 남긴다. 모든 기능이 상실한 말없는 세계는 그 자체로 불안한 상념에 뒤영겨 있다. 그렇게 사라지고 지워진 흔적들 속에는 목소리 없는 것들이 발자국을 드러내고, 인간의 발걸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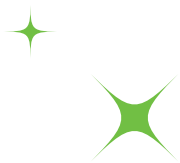
끊기길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 자유분방하고 무분별하게 자라나는 잡풀들과 오래된 건물의 벽을 타고 오르는 덩굴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서로 자생하며 자리 잡고 있다. 한쪽에서는 소멸되어가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사라지는 것에 부정하듯이 살아내고 있다. 이렇듯 사라지는 것 속에는 모순된 상념이 드러난다. 본인은 이러한 소외된 풍경 속에서 드러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주목하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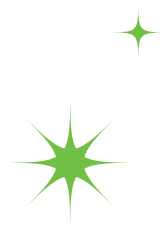


이채영(b.1984)은 덕성여자대학교 동양화학을 졸업했다. 개인전<이해의 자리>(2023, 소마미술관) 단체전<표류자들 MIMESIS AP8> (2024, 미세시스아트뮤지엄)등 여러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풍경을 바라보고 그 속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찾아내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마주치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 속에서 비정하고 고독한 것들이 드러나고,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모습이 우리의 현실
풍경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자유(하지윤)

Hazayou

@zayou.artwork

hgo54321@naver.com



<공연히 숲을 헤쳐서 뱀을 일구더니>

9.23.(월)~10.4(금)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B1

어떤 작품은 우리를 아주 멀리 데려가지만, 하자유의 작품은 우리를 가까운 곳에 오래 머물게 한다. 하자유의 주된 모티브인 '흔적'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사라져가는 공간과 순간을 포착하여 캔버스에 옮긴 유화 작업은 대상을 화면 위에 흔적으로 담아내는 반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다수의 판화 작업은 목판 위에 흔적을 새기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 장면의 서정성과 대상의 시각적 재현에 집중한 페인팅과 달리 하자유의 판화는 촉각적 경험을 통한 체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작가의 페인팅이 한 발짝 멀리서 숲을 바라본 것이라면, 판화 작업은 눈 덮인 숲 한복판에 들어선 사람으로서 하얀 땅 위에 찍은

불규칙한 발자국이며 매끄러운 공백의 나무판에 새긴 거친 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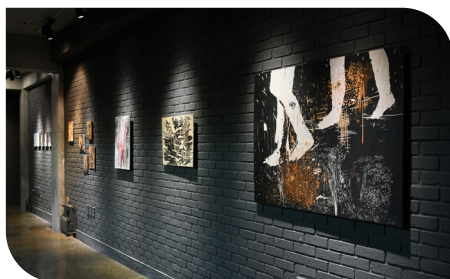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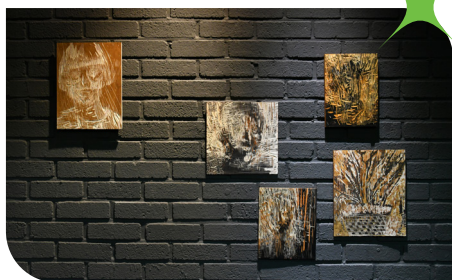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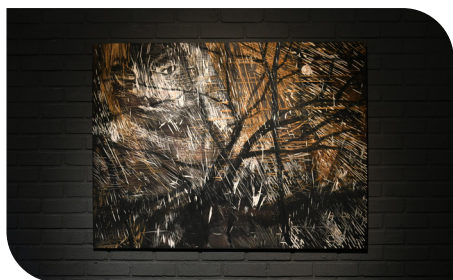
우리는 작가가 구태여 새겨둔 발자국을 뒤따라 걷는 사람이 되어 기꺼이 함께 한가로이 헤매기도 하며, 그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했던 얼굴과 장면을, 순간을 함께 되짚어보게 될 것이다.



하자유(b.1997)는 사라져가거나 새롭게 마주하는 것들을 유화와 목판에 흔적으로 남기며 작업한다. 북경 중앙미술학원 판화과를 졸업하였고, 2023년 개인전 《흔적이 풍경이 될 때》(미루갤러리, 서울), 《흘러흘러 어디로 가나》(예술공간 광명시작, 광명)을 시작으로 2023, 2024 부천아트페어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굼어 부스럼을 내는 것이 예술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흡하는 생명이 있기에 굼어낼 수 있고 그러기에 흔적이 남으며, 그 흔적을 통해 이면의
본질을 탐구하는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허선정

Hur Sunjung

@sun_j_hur

myboot@naver.com



<빛을 실은 바람, 진동하는 풍경>

10.8.(화)~13.(일)

부천아트벙커B39 유인송풍실 1층

우연히 창 속에서 달빛이 비춘 나의 얼굴을 본 순간, 내면을 직시한 듯한 자각이 들었다. 창밖의 풍경이 허상이 된 듯, 창 속 허상이 진실한 민낯 같았다. 그렇게 내 안으로 스며든 '빛'을 계기로 묘한 해방감을 느꼈고, 나는 점차 바람, 에너지, 파동과 같은 무형의 요소로부터 일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는 연이은 생사의 경험에서 연유한 근원적 세계에 대한 희구와 그로부터 비롯된 비가시적인 존재들에 대한 호기심이 교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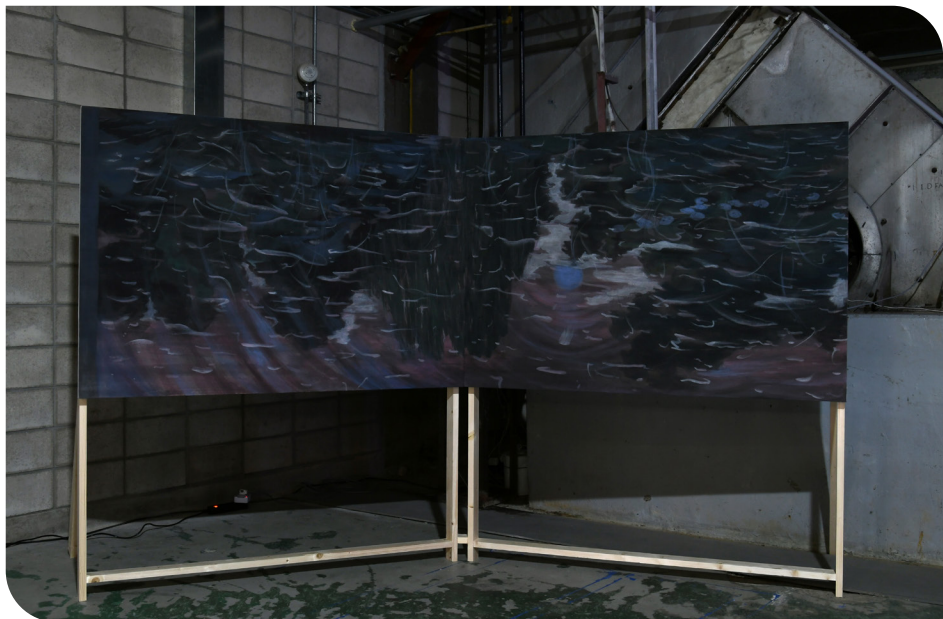
현재 나의 작업은 현실 공간을 무형의 요소를 통해 다층적으로 표현하는 실험을 하며 각자의 실상과 허상, 고착된 인식을 자극하고 질문하는 과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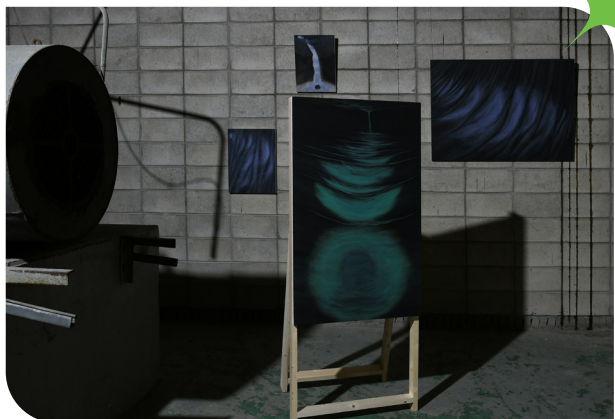
허선정(b.1989)은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개인전 《달빛을 지나서》(프로젝트스페이스우민, 2024),

《빛이 머문 자리》(대안공간 아트포럼리, 2023) 등 다수의 전시를 열었다.



“물을 통해 보이는 바람의 흔적, 식물의 틈으로 보이는 빛의 형상들을 저만의 시각으로 담고자 합니다. 무형의 존재로부터 바라본 풍경을 통해 일상을 바라보는 고정된 시각에 낯선 자극을 주고 싶습니다.”





전문가 리뷰 : 시각

오정은(미술비평가, 2024 청년예술가S 심의위원 및 시각분야 멘토)

이채영 : 말없는 세계

사라지고 살아지는 풍경

이채영의 회화로부터 두 개의 풍경을 본다. 용도를 잃은 폐공장과 공터 위 잡풀이 이루는 장소적 풍경 하나. 공허와 평온, 건조함과 먹먹함이 이루는 심상의 풍경 하나. 그 두 개의 풍경이 이채영이 먹의 필선으로 묘사한 사실적 증언이며, 종이 위에 안착한 습윤 안료가 형언한 무의식적 세계의 하나로 맴돈다. 어린 이채영이, 소년기의 이채영이, 성인이 된 이채영이 머물고 배회했던 술한 지역에 엉겨 붙은 오랜 르포(repo)이자 심상으로서.

이 풍경을 두고 이채영은 ‘말 없는 세계, 불완전한 세계가 만들어진 알 수 없는 풍경들’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작가노트를 계속 인용하자면, ‘과거 번성했던 공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쇠퇴한 결과물들인 폐허의 흔적들’, ‘공장의 가동이 멈춰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곧 사라질 것들이나 이미 사라진 것들’이다. 다시 오지 않을 과거의 시간을 함유하면서도 현재의 건축적 매스로서 눈앞에 실재하는 것,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으나 보아지는 경계 사이에서 이채영의 회화가 있다. 경계는 온전히 해체되거나 구분되지 않고 기이하며 고요한 감각으로 양가적 입장의 고단함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죽은 듯 살아있는 잡목과 잡초와 같은 자연물은 무언의 상징처럼 그 그림 속에 함께 한다. 낡은 건물 위 드리워진 거미줄같이, 마른 혈관 내 배양된 세포의 의지같이. 그것은 버려진 풍경이되 아직(혹은 결코) 죽지 않은 풍경의 일부다.

이채영은 인천과 경기도의 소도시를 유랑하며 살아왔다. 이 유랑은 고향을 잃은 실향민의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의 고정된 터전으로서 고향이랄 것이 없는 도시 유목민의 이동이다. 중심을 의식하지만 주변부로 멀어지기 거듭하는 불안이자 모순이다. 작가와 동세대 자본주의 키즈의 내면일 수 있을 그것은 자기소외의 현실을 대변하는 풍경으로 지금이라는 시대에 계속 ‘사라지고 살아지고’ 있다.

※ ‘사라지고 살아지고’라는 표현은 이채영의 《사라지다 살아지다》(2024, 아트벙커B399 유인송풍실)의 전시 제목에서 착안했다.



하자유 : 공연히 숲을 헤쳐서 뱀을 일구더니

하자유 개인전 《공연히 숲을 헤쳐서 뱀을 일구더니》는 우리 삶에 깃든 목적 없는 행위에 대한 숭고한 믿음을 말하는 전시다. 공연한 시간, 허망한 과정의 표상이 하자유 작가가 작업한 목판의 패인 마디마디에 고요히 대응한다. 전시되어 있는 20여 점의 목판 조각은 추상적 행위의 난삽한 칼질 같기도, 의도적으로 형체를 흐트린 특정한 자흔 같기도 하다. 우리는 그런 목판 층위에 새겨진 이미지,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부산물을 작가가 지은 시적인 제목과 함께 본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자라있다>, <낮선 이의 등과 무심코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여름이 지나간 자리>,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길이 시작되는 곳에 고여 있는>처럼, 텍스트가 담지한 정서가 목판에 음각으로 누적된 시간의 느린 감각과 함께 섞여 지금에 서정적으로 공명한다.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작업실에서 키웠던 화분과 동네 어귀 골목의 풍경, 스마트폰에 담은 작가 자신과 주변인의 얼굴, 산책했던 풀숲 아니면 갯벌의 이미지가 목판의 군데군데 새겨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그 주변을 감싸거나 해치듯 파헤친 칼의 우연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

'펼쳐지지 않음을 인지하면서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감수하여 삶이라는 판을 굽어내는 생명들이 들끓고 있다.' (하자유 작가노트)

작가의 일상과 그 일상의 시선에 포착된 무언의 형상이 어쩌면 '공연하게' 복제되고 옮겨져 지금의 전시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그 '공연함'에 대한 '공연하지 않은' 믿음을 갖는 것 같다. 헤치지 않고는, 파내어 굽어내지 않고는 모르는 미지의 것을 일구고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러한 현상에 대한 신념을 수호하는 것이다. 생명이 오고 가는 정경을 대하는 호기심, 불투명한 삶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의지, 그리고 어느 젊은 예술가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용기로도 해석될 수 있을 신념을.



허선탈 : 빛을 실은 바람, 진동하는 풍경

허선탈 작가의 개인전 《빛을 실은 바람, 진동하는 풍경》이 부천 아트벙커B39 유인송풍실에서 열렸다. 해당 장소는 과거 사용한 쓰레기소각시설 다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낯선 기물과 기이한 기운이 실내 공간 내 그득 차 있는 곳이다. '빛'으로 상징되는 동양철학적 주제를 탐구하면서 정제된 화면을 연출해온 허선탈 작가에게 벙커의 기기·집기류와 인공 어둠 속 조명은 그간 익숙했던 화이트큐브형 전시 일률을 벗어난 실험이기도 했다. 회화 작품을 세우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각목 지지대 결합도 (불에 타지 않는) 철과 파이프가 가득한 이곳에서는 이질적인 오브제로 눈에 띄었다. 불결하고 오래된 송풍실 특유의 환경에 명상적이고 차분한 회화가 전시되어 상충되는 감각 또한 묘하다.

물질을 태워 재와 기체로 휘발하며 무(無)를 추구하던 공간, 그 소멸의 목적성조차 이후 보존의 성질로 돌아가 일종의 공공기념비로 기능하는 곳, 벙커. 그곳을 채운 작품은 허선탈 작가에 의해 '허(虛)', '실(實)'의 개념을 각각 가진 '빛'과 '그림자' 표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마주한 달>, <흐르는 달>(2024) 같이 달의 형상을 은유한 조형 패턴, 그림자 너울이 그려진 것. 혹은 그러한 상징기호가 출연하되 물이나 바람 같은 유동의 자연과 한 데 섞여 양 주제와 배경이 하나가 된 화면 <바람풍경>, <빛을 실은 바람>, <달과 분수>(2024)가 그렇다.

한편, 허선탈은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 '허실(虛實) 개념을 통한 '빛'의 상징성 표현 연구, (홍익대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2024)에서 자기 작업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본인은 유년기 때부터 세상을 인식함에 있어 표면적 형상과 현상보다 그 이면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천성적 성품뿐 아니라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온 가정적 환경에 연유한다. (...) 이로 인해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빛'을 매개로 비가시적인 본질적 차원과 연계하여 확장하게 되었다. (...) 보편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실'로 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허'로 인식한다. (...)본인은 비가시적인 본질인 '허'의 세계를 그림에서 '빛'으로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허선탈, 「허실(虛實) 개념을 통한 '빛'의 상징성 표현 연구, (홍익대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박사학위 청구논문, 2024) -국문초록에서 발췌-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는 비가시적인 세계를 시각화하여 묘사하는 아이러니. 허선탈은 그 아이러니를 탐닉하고 증언하며 자기를 수양하는 예술을 한다. 빛을 실은 바람처럼, 진동하는 풍경처럼.

관람객 한마디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고뇌한 흔적과 전시를 구성할 때 고민한 흔적들이 모여 하나의 좋은 전시가 된 것 같다. 화면 안에서의 고군분투와 다양한 시도가 좋았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반짝이는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여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작품을 만드는 작가를 응원해 주고 싶었어요. 저는 작가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거라고 믿어요!

상처도 어떤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무 위에 파이고 새겨진 빗방울과 초상의 서사가 기억에 계속 남습니다.

작가의 일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 삶에 지쳐 허덕이는 많은 사회와 사람들을 대변해 주변을 담아내어 보관해주는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화 특유의 거친 질감이 표현하는 비정형적인 모습으로부터 되려 배려받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작가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자주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한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의 비밀스러운 전시관람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작가님이 계속해서 세계를 이뤄가시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청년예술가S 실연회: 공연



예술가명	장르	작품명	일정	장소
김준봉	서커스	인간허물벗기쇼	10.12.(토) 17:00	부천아트벙커 시민광장
박예정	국악	Timelapse2	10.26.(토) 16:00	부천아트벙커 시민광장
엄제은	한국무용	날개를 잃지 않았다면	10.20.(일) 19:00	부천아트벙커 에어갤러리
유하현	클래식	가을의 메타포	10.19.(토) 17:00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
이민영	서커스	Us again ver.2	10.27.(일) 15:00	부천중앙공원
최규화	연극	터질 것만 같은 : 행동싱크	9.29.(일) 15:00 / 19:00	소극장 극예술공간
최아련	연극	Let's Go To My Star 시즌 3	10.25.(금) 17:30 / 19:30	소사공간

* 공연 세부내용 및 프로그램은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예술가S 심의총평 : 공연 부문

심의 과정을 통해 부천에 기반을 둔 청년예술가들의 다양한 고민과 활동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부천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예술가S> 지원사업의 성과들을 통해 지역 청년예술가들 간 실질적인 교류와 동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천 지역의 청년예술가 발굴 및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자의 예술적 역량 및 독창성과 더불어 지역 기반의 적극적 활동 여부를 고려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서커스 장르에 기대가 모였다. 공원 및 아트벙커 등 전형적인 극장을 벗어난 공간에서 선보이는 아크로바틱한 퍼포먼스를 통해 부천 시민들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극 장르는 유토피아와 나르시시즘 등 주제적 독창성이 돋보였다.



김준봉 (컨컨)

Kim Joonbong 서커스/거리예술 퍼포머



ciecontconn@kakao.com



@neoddeye



@ciecontconn



<인간허물벗기쇼>

10.12.(토) 17:00 부천아트벙커B39 시민광장

출연 김준봉 컨컨

음악 신세빈

구조물 거산조형

우리는 여러 겹의 옷을 입는다. 후드, 자켓, 셔츠, 티셔츠, 속옷, 양말, 신발, 모자... 우리는 가끔 뱀처럼 허물을 벗어놓는다. 아니, 누군가는 곱게 접어놓는다. 누군가는 남의 허물을 잘 정리해주길 기다린다. 누군가는 그 모양 그대로 한참을 두고 바라본다.

인간허물벗기쇼는 1인 광대 공중극에 서커스극으로, 개인에게 변화하며 성장하기를 요구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좌절감과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강박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기 성장, 인간다운 삶, 과거, 탈피 등의 다소 진지한 주제들을 일상적인 상황과 시로 대변되는 목소리, 그리고 신체 움직임과 서커스 기예를 통해 1차원적이고 쉽게 풀어내고자 한다.

김준봉은 서커스 및 거리예술 퍼포머로, 2014년도 시극을 통해 데뷔하여, 연극, 신체극, 뮤지컬, 거리예술, 서커스, 다원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예술 장르에서 퍼포머 및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도 설립한 컨컨이라는 공연예술단체에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서커스 분야에서는 에어리얼 실크(천)과 에어리얼 로프(밧줄)을 주 기예로 연구하고 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인걸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걸
벗어던져봐요 부끄러워 말고
지금 순간만 의미가 있을뿐





박예정

Park Yejeong 가야금연주자



pyjmusic_@naver.com



@yejeong.park



@pyjmusic



<Timelapse2>

10.26.(토) 16:00 부천아트벙커B39 시민광장

가야금, 작곡 박예정

드럼 김수준

홍보물 디자인 최수연

미술감독 김에스더

음향감독 김문고

현장매니저 문정인

프로그램

1. My Gravity
2.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3. Since
4. Green land
5. 태양과 멀어질 때
6. Fog on the bridge
7. 히아신스
8. Bird song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눈 깜짝할 사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바라보지 못하였던 사소한 순간들을 잠시 멈추고 바라본 하루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쉽기만 하다. 해가 뜨고 지는 순간의 아름다움, 안개 낀 다리 위의 고요함, 낯선 여행지에서의 초록빛 풍경 등. 가야금연주자 박예정은 빠르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느꼈던 아쉬운 순간들을 음악, 도시자연과 함께 향유하고자 한다. 이 공연에서 선보일 8곡은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타임랩스에 영감을 얻어 직접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작곡하였다. <TimeLapse>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사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가야금 연주자이자 창작자인 **박예정**은 다양한 장르에서 가야금으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뉴아티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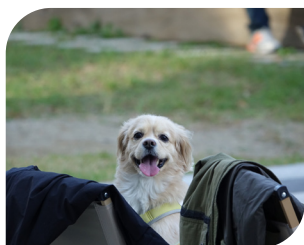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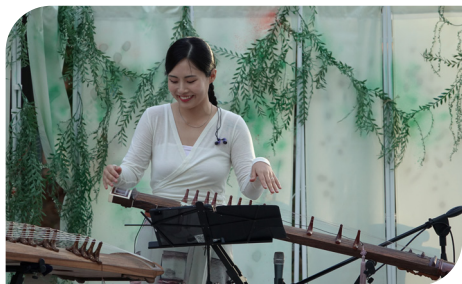
주로 음악을 직접 창작하고 가야금 본연의 소리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닌 확장하여, 자신이 듣는 가야금의 음색을 관객에게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시도들을 해내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이며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저는 가야금으로 제 삶의 경험을 표현하는 연주자입니다. 과거의 창작이 현재의 전통이 된 것처럼, 현재의 창작이 전통을 만든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시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엄제은

Eom Jea Eun 한국무용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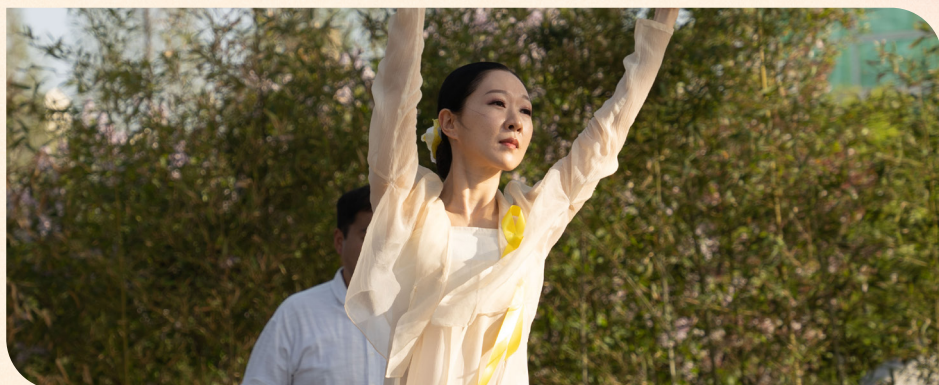
eom3697@gmail.com



@jaeeun1711



@moveteller-eje



<날개를 잃지 않았다면>

10.20.(일) 19:00 부천아트벙커B39 에어갤러리

무용·안무 엄제은 정유진 장은진

장구 구자호 **거문고** 김은선

소리 이은주 **기타** 정재영

영상제작 최정규

무대감독 이득규

조명감독 신덕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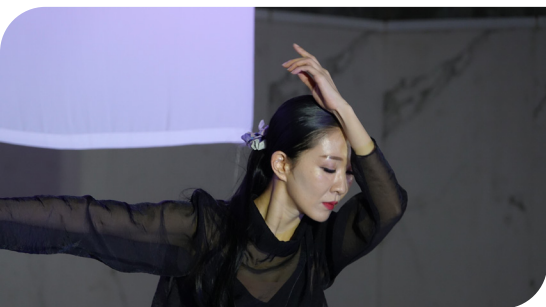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창작무용극 “날개를 잃지 않았다면”은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기후위기, 전염병,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한 그들을 기억하고, 시민 사회참여예술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무용공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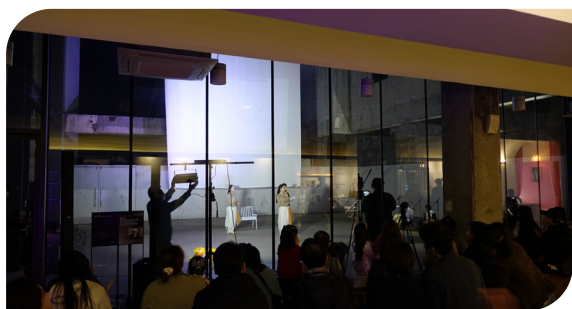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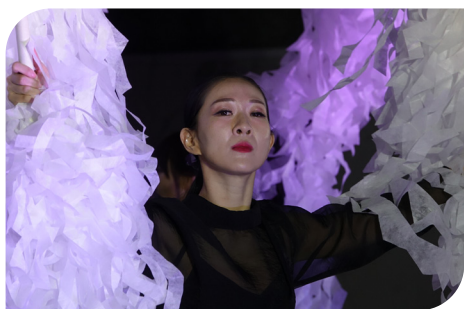
“춤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사회와 삶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무브텔러(moveteller)” **엄제은**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를 경험하며 예술이 그 시대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대해 고민하고, 사회적 아픔을 춤으로 승화시키고 표현하는 매개자로서 매년 부천 시민기억문화제에서 '사회적 참사, 갈등,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항적인 정신을 반영한 당대적인 예술작품을 기획하였다. 앞으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시민들과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무용공연으로 예술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향유 하는 예술 활동을 펼치려 한다.





“저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를 경험하며 **예술이 그 시대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아픔을 춤으로 승화시키고 표현하는 매개자로서 사회적 참사, 갈등,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항적인 정신을 반영한 당대적인 예술 작품을 기획**하였습니다.”







유하현

Yoo Ha Hyeon 피아니스트



pianoing@naver.com



@ha_hyeon93



Y의 피아노



<가을의 메타포>

10.19.(토) 17:00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

피아니스트 유하현

작곡가 이 한

프로그램

1.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 소나타, 가단조 K. 54, 가장조 K. 24
2. 모리스 라벨의 6개의 피아노 모음곡, <쿠프랭의 무덤>
3. 이 한의 데이터트론 I : 세레나데 बैंक
4. 요하네스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번호 118

가을의 메타포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대의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가진 의미와 암시를 피아니스트 유하현의 연주와 해설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피아노 독주회.

따뜻하고 섬세한 음색을 가진 피아니스트 **유하현**은 경기예고 예술영재 수료 후 서울예고 졸업, 가천대 수석 입학 및 수석 졸업 및 동대학원 교수연구장학금을 수혜받으며 수료 후 독일 드레스덴 음대 마스터 과정을 졸업하였다.

독일 유학 전후로 독주, 앙상블, 현대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며 음악 견문을 넓혔다.

청중들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공유하고자 하는 젊은 피아니스트이다.





“클래식 연주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음악들을 꺼내어 재현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이와 잉크로 잠들어 있는 것들을 저만의 고유한 소리로
꺼냄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새로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영

Lee Mingyoung 서커스 아티스트

@cyrwheel_baby_minyoung



<U's Again ver.2>

10.27.(일) 15:00 중앙공원 카페테리아 앞 광장

출연 이민영 김재섭
기술스태프 박효중

한 노부부의 특별하지 않은 날, 무료한 삶 속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젊음을 우연히 얻게 되면서 유한한 시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차이니즈폴 서커스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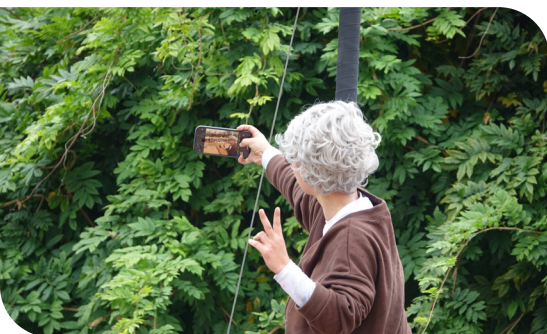
이민영은 극 기반의 서커스 공연예술을 창작하며 서커스의 예술적 영역 확장을 목표로 활동하고있는 Cyr wheel 서커스 아티스트이다. 단순히 노래에 맞추어 기술만을 나열하다 끝나는 서커스 보다는 드라마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서커스를 창작하고 있다.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여 익숙하고 평범한 공간에 새로운 판타지를 불러일으키고, 공연자와 시민들의 경계를 없애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최규화

Choe Gyuhwa 연극 연출자

@극단 메타포



<터질 것만 같은 : 행동싱크>

9.29.(일) 15:00, 19:00 소극장 극예술공간

출연 김재민 박진호 심효민

이주원 양다영 윤상영

장요훈 진지은 최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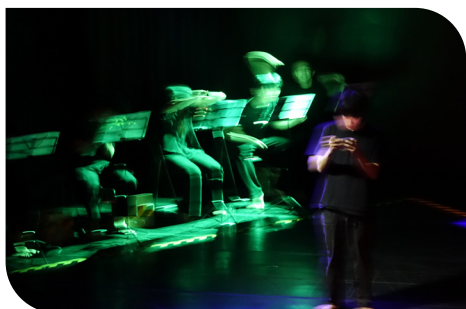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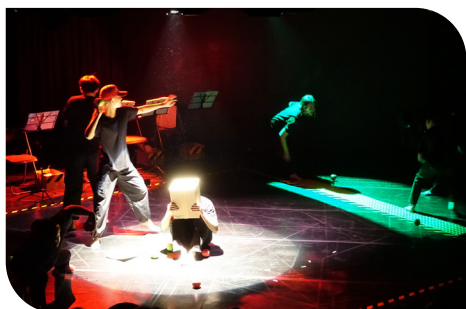
스태프 이진우 선명주 문중운

<터질 것만 같은 : 행동싱크>는 포스트 드라마이다. '남주'라는 한국에 사는 2~30대 남성의 이야기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게임만 하는 '남주'는 실험실 안의 쥐를 표상한다. 해설자는 이 '남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실험의 부분으로 소개한다. 그는 억압과 폭력이 내재된 사회, 사과하고 사과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등 선택의 권한이 줄어든 사회에 떨어졌다. 그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고통받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모든 일을 실험으로 인식하지만 망설이며 끝난다. 이 내용을 통해 패배주의라는 실험실에서 벗어나려면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라는 주제를 전달하려고 한다.

직관적인 시선의 배열이 또 다른 은유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현상을 재배치하는 에디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둘러 말하지 않는 현실인데, 서사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영방송보다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찾게 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도파민 중독'이라며 연극마저 이들의 욕구를 눌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인식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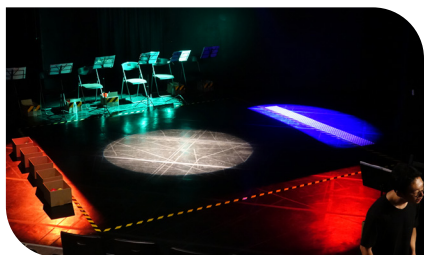




“레퍼토리 공연을 이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고유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립한 부분은 ‘레퍼토리’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처럼 작품을 뒤엎고 분해하고 재조립함으로써 망탈리테에 관한 고찰을 하는 행위야말로 연극의 지속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아련

Choi, Aryeon 극작가, 연출가, 퍼포머

✉ dkfus1213@naver.com 📷 @arony_artwork ▶ @rahdooosup



<Let's Go To My Star 시즌 3>

10.25.(금) 17:30, 19:30 소사공간

작·연출 최아련

대본도움 박두환 변준섭

출연 최아련 박두환 변준섭

예술감독 이해정 기술감독 황규연

음악감독 홍선 안무 박수연

의상 이정민 포토 오은빈

포스터 변준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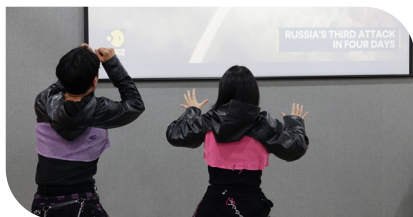
<Let's Go To My Star 시즌 3>는 유토피아를 실험하는3부작 연극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작품은 20세기 독일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서사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포스트서사극'을 표방하며, 전통적인 서사 구조에서 벗어난 스토리텔링, 형이상학적 움직임, 노래와 춤, 막간극, 인터넷 밈과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연 형식을 실험합니다. 작품을 통해 인류는 인간소외, 공동체 분열, 각자도생, 승자독식, 무한경쟁, 환경파괴와 같이 전 지구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돌봄'과 '공동체'를 중심 윤리로 두는 '돌봄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실험하고자 합니다.

최아련은 창작자이자 연구자로서 동시대의 새로운 극작법과 공연 형식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프락시스를 추구합니다. 2019년 영국 런던에서 디바이징 연극 <Mind the Gap>을 공연하고, 2021년부터는 하나의 세계관에서 파생된 <Let's Go To My Star> 3부작을 창작, 실현합니다. 이외에도 극작가, 연출가, 퍼포머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병행하며 '어둠속의 연극, 입체음향, 퍼포머의 부재, 자전적 드라마, 자문화기술지, 디바이징, 세계관'을 활용한 작업을 지속합니다.





“독특하고 재기발랄한 연극을
만드는 청년예술가가 부천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작품의
주제가 돌봄과 공동체로
연결되는 만큼, 돌봄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함께
회복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돌봄을 실천하여 그 영향력을
지역사회 내에서 확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리뷰 : 공연

김서령(이오공감 대표, 2024 청년예술가S 심의위원 및 공연분야 멘토)

김준봉 <인간하늘벗기쇼>

부천아트벙커 광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대 쪽이 아니라 광장 코너에 무대를 펼쳐 야외임에도 집중도를 높이고, 해가 지는 시간대에 자연채광 효과를 활용한 점이 효과적이었다. 유동인구가 적은 장소 특성상 별도의 집객이 필요했는데, 서커스라는 장르에 대한 관심, 호기심으로 지역 시민들의 관람 참여가 눈에 띄었다.

부천아트벙커의 공간적 특성상 서커스라는 장르를 수용하기에 양호한 컨디션이고 이번 멘토링을 통해 부천 지역에 거주하는 서커스 관계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 바, 거리예술 및 서커스의 수요가 많아진 예술현장을 고려해 이곳을 기반으로 서커스 장르를 양성, 확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박예정 <Timelapse2>

부천아트벙커 시민광장 무대 앞쪽으로 내려와 무대를 조성하였는데 장소의 환경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다양한 이동 가능한 소품 등을 활용해 작품 분위기를 살리는 무대를 적절하게 조성하였다. 큐알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프로그램북을 제공하였으며, 관객들에게 셋리스트를 사전에 제공하고 커피쿠폰으로 활용하게 하여 관객 편의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25현 가야금과 철가야금을 활용하고 활이나 루프스테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연주법과 표현의 확장을 꾀하였으며, 그룹 활동에서 솔로 연주자로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한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되었다. 특히 마지막 2곡은 객원 연주자와 함께 준비한 무대였는데 드물게 국악 장단을 잘 소화하는 드럼 연주자로서 두 사람의 지속적인 협연을 기대하게 하였다.



염제는 <날개를 잃지 않았다면>

천정이 뚫린 높은 층고를 가진 아트벙커 에어갤러리를 무대로, 유리창 안쪽의 공간을 객석으로 활용하여 시청각적인 분리를 통해 작품의 시각적 전달력과 몰입도를 높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작품 전체의 음악을 새로이 창작한 라이브 연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네 개의 장면 사이사이에 애니메이션 영상을 배치하여 전체 작품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연결한 점은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주제를 무용이라는 추상적 장르에 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던 작가의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무대였고, 추운 날씨와 열악한 공간적 제약에도 열연을 보여준 무용수들과 연주자들의 에너지가 객석을 꽉 채운 관객들에게도 잘 전달되어 몰입도 높은 공연이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2018 청년예술가S 선정자인 김은선 거문고 연주자와의 협연이 더욱 의미 있었는데, 이는 본 사업이 지역 내 예술인들의 발굴, 성장을 독려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류와 확장으로 이어진 긍정적인 성과로 보인다.

유하현 <가을의 메타포>

클래식 연주자를 창작자의 영역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도 있었지만 본 사업이 창작, 활동, 발표지원 사업인만큼 다양한 활동 범위의 우수한 신진예술가들의 발굴, 육성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레퍼토리 선정과 곡 분석 및 해설, 신진 작곡자와의 협업을 통한 초연곡 발표, 지속적인 연주활동과 홍보를 통한 지역 관객 개발 등 여러 부분에서 독심있는 추진력과 성장을 보여준 유하현 연주자의 무대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다.

객석이 거의 만석이었는데, 부천지역의 클래식 관객층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클래식 분야의 신진예술가들의 앞으로의 활동과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

이민영 <Us again ver.2>

작품 창작작 기간 동안 해외 일정 등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내용, 표현, 현장 운영 등에 대한 충실한 고민과 준비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연장소인 중앙공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리서치 후 위치를 선정하고, 카페 협조, 사전 홍보 등을 진행한 점이 집객 유도과 원활한 진행에 유효했던 것 같다. 평소 협업을 해왔던 기술스텝들과 함께 서커스 시설물 제작에 대해 고민하고 작품에 맞게 무대화하는 데에 많은 힘을 기울였으며, 이런 점이 공연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발휘되었다.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 준비한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기하는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고, 현장 관객들 역시 비를 맞으며 마지막까지 큰 박수로 격려하는 모습이었다. 우천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포토타임까지 최선을 다한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최규화 <터질 것만 같은 : 행동싱크>

기획과 창작 기간은 짧지 않았으나, 배우들과의 연습 일정 및 환경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염려가 컸었는데 많은 인원의 배우들이 적지 않은 대사량을 소화해 내고 동선이나 앙상블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무대였다고 생각된다.

낭독회 형식을 빌었지만 상당 부분 대사를 숙지하고 동선이나 무대 구성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품을 발전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다음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접근성이 높지 않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로 공연의 열기가 뜨거웠고, 작품 구성구석에 관객의 몰입과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배치한 점도 효과적인 연출이었다.

부천 지역 기반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열정적인 에너지로 작품을 준비하고 지역 관객 개발과 지속적인 활동 환경 조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져 부천 지역 연극 공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

최아련 <Let's Go To My Star 시즌 3>

소사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래된 집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지역 공동체의 네트워크 공간이자 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사공간에 30여석 규모의 객석을 마련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소사공간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케어로토피아를 실천 중인 돌봄마을이라 생각하여 선택했다는 점이 공연 장소 선정에 설득력 있었고, 공간의 특성 및 제약을 입체낭독 쇼케이스라는 형식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1장과 3장은 대본을 보고, 2장은 대사를 완전히 숙지하여 연기하였는데, 이미 3부작의 시리즈 전편을 함께 해온 만큼 구성원들의 공동창작의 시스템과 연기의 합이 우수하였다.

12월에 예정되어있는 본공연 이전에 창제작 과정을 점검하고 작품 완성을 위한 관객 피드백과 소통이 주 목적인 만큼 공연 후 이어진 20여분간의 관객과의 대화는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연출자 뿐만 아니라 3인의 공동창작자이자 배우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여 더욱 내실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진지한 질문과 이후 본공연까지의 발전 과정에 필요한 피드백을 듣고자 하는 창작자들의 의지가 관객들에게도 전달되어 매우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 시간이 이어졌고, 소수의 관객들이었지만 미완의 낭독회의 형식을 빌어 작품의 완성까지 가는 단계에서 매우 필요하고 의미있는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관람객 한마디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허물을 입고 벗고, 천을 오르내리는 행위로 비유하여 표현해주셔서 생각을 하게 되는 주제였고 1인극으로 몰입도 있게 공연해주셔서 그 노력이 더욱 느껴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서커스의 창작 역량이 정말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케 한 공연이었습니다. 기예와 도구에 대한 작가적 시선과 벌레스크가 가미된 연출 방식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향후 재공연이 꼭 이뤄져 더 많은 관객들이 작품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럼과 가야금의 조합은 정말 상상도 못해봤는데 너무 신선하고 좋았어요!
약 한 시간 동안의 공연이었지만 단 한 번도 지루한 틈이 없이 너무 잘 봤습니다.

이번 야외 공연장은 자연과 어울려져 가야금 연주가 더욱 멋졌습니다♡

사회적참사를 예술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인상 깊고,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간에 설치된 작품을 활용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예술로 승화시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해준 작품.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났음. 사전 설명을 들으니 전시 작품과 공연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서 더 좋았고, 무대와 객석을 분리하여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아픔을 더욱 극적으로 느낄 수 있었음. 이런 좋은 작품엔 지속적인 지원 필요함.

피아니스트의 직접적인 진행과 내용설명, 작품의 선정 등 모든부분이 지루할 틈 없이 만족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숨은 예술가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최선을 다해 멋진 공연 펼쳐주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산책 나왔다 우연히 보게 된 공연. 알차고 새로운 공연에 감동입니다.
공연내내 힘드셨을텐데 앞으로도 좋은 공연 부탁드립니다요. 화이팅!

뛰어난 연출과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덕분에 편한 마음으로 잘 봤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와 관련된 이슈들을 연극으로 잘 짚어내고 관객으로 하여금 본인과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준 것 같아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유경쟁사회에서 욕망을 해소하는 법을 모르고 쥐떼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그에 적응하지 못하던 주연 배우분..의 모습을 보며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편으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너무 열연해주셔서 재미있었어요!

너무 잘봤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요새 교육 현실, 사회 현실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공연을 통해 미래세대도, 어른들에게도 좋은 자극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작품 같습니다.

가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담고 있어 공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사람을 향한 세 분의 애정어린 시선이 따뜻한 위로로 전달됨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꿈꾸고 행동할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연대와 돌봄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하고 이를 전달하는 화두섭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2024 부천문화재단 차세대전문예술활동지원

청년예술가S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4. 12.

발행처 (재)부천문화재단

발행인 한병환

편집인, 기획총괄 김영란

기획편집 한지원, 김여정

2024 부천문화재단 차세대전문예술활동지원

청년예술가S

결과자료집